

종합·해설

‘신설합당’ 유력 ‘흡수합당’ 이견

야권 통합정당 방식 관심...‘제3지대 창당’ 사실상 희박

야권의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통합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정당의 출현 방식은 통합(전당대회) 추진 방식을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혁신과통합’ 등 통합에 참여할 각 정당과 세력 간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는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제3지대 창당’ 등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신설합당은 ‘새천년민주당 창당’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통성과 골격을 승계하는 형태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한 방식을 원용하자는 것으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을 ‘기획합당’시켜 외부에서 혁신과통합, 기타 통합세력과 함께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한 뒤 이 신당이 신설합당 형식으로 민주당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혁신과통합은 신설합당 방식이 민주당의 색채를 지우고 야권 통합정당

의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다른 세력과 통합에도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흡수합당 방식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본체를 유지한 채 혁신과 통합을 비롯한 통합의 대상을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은 민주당에 복당·입당하거나 영입되는 모양새를 띤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주장하는 ‘선(先) 민주당 전대 후 통합’ 방식은 이 같은 흡수합당 방식을 거머쥐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의 법통과 자산·부

채를 그대로 살려나가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통합 참여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가 돼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제3지대 창당은 가능하다. 제3지대 창당은 지난 2007년 열린 우리당, 열린우리당 탈당과, 시민사회가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해 기존 정당과 세력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신설합당과 비슷하지만 제3지대 창당은 일부 세력의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대통령 전대 후 통합 방식은 이 같은 흡수합당 방식을 거머쥐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의 법통과 자산·부

한 공방이 전개됐다. 그러나 제3지대 창당은 당내에서 분당사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만 가능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이 정도는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생활정치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사라진 다음이라면 몰라도 제3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야권 분열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와주세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문화상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하하고 나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다가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뭘! 우리보고 나가라고...’

한나라 ‘공천 물갈이론’...영남권 대선·고령의원들 강력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 물갈이론’이 급부상하면서 영남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영남권의 대선·고령 의원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8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이하 여연) 내부 전략문건에 따르면 여연은 내년 4월 11일 총선 승

리를 위해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15대 총선과 고령의원 20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기사화생한 여연의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당내 잡룡도 ‘물갈이론’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 “영국 축구를 보

면 1년 단위로 선수가 바뀐다. 4년에 한번 하는 인사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제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인 이한구(3선·대구 수성갑) 의원은 “강남·영남 50% 물갈이” 주장에 대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영남이 나 어찌나 재물을 갖다대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쇄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3주 연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전대나 독자전대나

광주·전남 진보개혁 세력들

당지도부 Vs 당권주자·원로·원외위원장 기싸움

대통합엔 “공감” 방식엔 “견해차”

야권대통합 추진을 선언한 민주당 안에서 통합 방식을 놓고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전당대회를 한 번에 치르려는 당 지도부와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먼저 치른 뒤 통합을 추진하자는 당권주자·당내 원로·원외위원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전대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석현·유선호·박기춘·조경태·김희철·최종환 의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어 통합전대를 추진하는 손학규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을 위장한 야합에 반대한다”, “야권통합 추진기구 ‘혁신과 통합’과 당 대표를 1:1로 나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지분나누기”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원의 지역위원장도 이날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원외 지역위원장이 중심이 된 임시전당대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찬간담회를 정리한 뒤 대의원 서명(3분의 1 이상)을 받아 단독 전대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혁신과 통합 등은 통합이 아니라 복당과 입당·영입 대상이다. 새 지도부가 질서 있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단독 전대는 불가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전대를 할 경우 독자 생존론이 강해질 수 있는데다, 이후 통합을 하더라도 다른 세력과 ‘지분 나누기’로만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단독 전대를 한다는 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시간이 없다. 현 지도부와 당권주자가 컨센서스를 이루고, 하나의 차원에서 통합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진보개혁 세력은 통합 방식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2012 광주연대’(가칭)는 8일 오후 광주NGO센터에서 ‘진보개혁세력 통합의 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후보를 단일화해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보였으나 통합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입력광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현재 상황으로는 혁신과 민주당, 진보신당과 사회당, 민노당과 국민통합 등 3~4개 소통합 구조로 고차원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 형성이 어렵다”며 “단일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백 광주혁신과통합 공동대표는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혁신과통합 역시 총선 후보를 배출해 정치참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합 시 민주당의 독점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택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대통합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치, 한나라당과 대결할 야권 대통합을 원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합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윤남실 광주통합연대 공동대표는 “박원순, 안철수 열풍으로 소위 진보라 불리는 정당도 낡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느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을 살리는 통합보다는 새 진보정당답게 대응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민호 민주당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을 고치고 다듬어서 다시 주요세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 인물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후보 광주 유세

홍세화 진보신당 당 대표 후보가 9일 지역유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홍 후보는 이날 캐리어 노조와 기자차 노조 지부를 잇달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 뒤 인화학교 대회를 방문한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주시 동구 장동 진보신당 사무실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유세를 진행한다. 진보신당은 각 지역별 유세를 마친 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당원들의 인터넷 및 현장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표단을 선출하게 된다.

민노, 한미 FTA반대 정당연설회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민주당노동당 광주시당이 동네로 찾아가는 한미FTA 반대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8일 오후 일곡동 우체국 사거리와 운암아파트 3단지에서 이채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유진 북구의원, 김현성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반대 연설을 진행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나라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한나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안유미)는 9일 도당 5층 대강당에서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제2기 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을 갖는다. 도당 여성위원회는 “급변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2012년 총·대선을 앞둔 여성의 정치적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성 정치역량의 전문화에 두기 위해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연다”라고 밝혔다.

정남준 전 차관 조선이공대 특강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오후 조선이공대학 초청으로 ‘젊음과 도전, 인생 100세 시대의 설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차관은 이날 특강에서 “인력 구조 및 일자리의 변화, 한류열풍 등 사회변화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도전의식을 갖고서 평생 현역의 자세로 자기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발목펌프 운동

신개념 관절척추나누기
경침 7겹용 음성카운터 운동방안?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주방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601154-52-335334 서영섭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문의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 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할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컨설팅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원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동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도(집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